

이서영. 2023. “노동인권교육에서 그림책 읽기 방안 연구” 『인권연구』 6(1): 1-31.  
Rhee, Seo Young. 2023. “A Study on Reading Picture Books for Labor Rights Education”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6(1): 1-31.  
DOI: <http://www.doi.or.kr/10.22976/JHRS.2023.6.1.1>

[일반논문]

## 노동인권교육에서 그림책 읽기 방안 연구

이서영\*

---

한글초록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서 교수학습지도자료를 제작하였다. 교수학습지도자료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과 교수학습자료를 활용하여 구성되었는데, 교수학습자료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림책은 연령에 상관없이 학습자의 접근성이 높으며, 공감적 상상이 가능하여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적, 정서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동인권교육에서 그림책을 활용하기 위한 준거로 그림책 선정기준과 읽기 단계를 다음과 같이 개발한다.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그림책 선정기준은 ‘노동인권 지식’, ‘노동인권 감수성’, ‘노동인권 실천 가능성’으로 설정한다. 그림책 읽기 단계는 ‘설명하기’, ‘이해하기’, ‘적용하기’ 순서로 설정했다. 끝으로 그림책 『매미』를 사례로, 개발된 그림책 선정기준과 그림책 읽기 3단계를 적용하여 읽는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질문 목록을 제시한다. 노동인권교육에서 그림책 읽기는 노동인권을 모르는 학생들에게 노동인권에 관심을 갖게 하며, 학생 개개인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탁월한 교수학습전략으로 상상의 변주와 변증법적 해석을 통해 자신의 노동인권을 알고 타인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할 것이다.

주제어: 노동인권교육, 그림책, 선정기준, 읽기 단계, 자기이해, 교수학습 방안

---

---

\* 서울대학교 부설학교진흥원

ISSN 2635-4632

— 목 차 —

- I. 서론
- II. 노동인권교육과 그림책 읽기
- III.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그림책 읽기 방안
- IV.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그림책 읽기 사례
- V. 결론

## I. 서론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세계인권선언’에서 노동권은 경제적 권리로 제시되지만, 노동인권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시민적·정치적 권리이면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포함한다. 즉, 인간의 삶에서 노동은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성의 하나이므로, 노동인권은 어른이 되어서 알아야 하는 지식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교육이 될 필요가 있는 문화이자 삶이라고 할 수 있다(이서영, 2022: 159).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동시에 미래에 다수의 청소년들이 노동자로서 자리매김할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이서영, 2022: 163). 대부분의 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는 노동인권교육 조례를 설치하여 학교 현장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실효성이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노동인권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곳도 생겨났다. 그러나 노동인권교육은 사회과교육과 같이 교과교육학의 학문적 토대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적 요구가 강화되면서 교육 현장에 떠맡겨지고 있다.

한편, 요즘 학교 현장에서는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이 유행이다. 그림책은 학년 구분 없이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교육매체이며, 일반 수

업활동 자료 및 매체에서 나아가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을 지원하는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다(이순아·임성만, 2021: 483). 그렇다보니 그림책을 활용하는 수업이 유아부터 고등학생, 그리고 성인학습자까지 유용함은 현장 교사들의 수업을 담은 서적들의 출판이 늘고 있는 것에서 살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 분야에서는 그림책을 활용하는 수업과 관련된 교원연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sup>1)</sup>

그림책을 수업에 활용하는 이유는 학습자 접근성 및 학습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다. 학습자의 동기유발에 용이한 점이 학습자 접근성을 높이는 첫 근거이다. 그림책은 그림과 글로 구성된 텍스트로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될 수 있는 매체이면서 학습자가 쉽고 재미있다고 인식하는 자료이다. 그림책은 그림과 글이 결합하여 의미를 전달하여 아직 글자를 해독하지 않은 유·아동에게 문학적인 경험과 교육을 제공하는 중요한 매체로, 창의력을 높이며 사회·정서 능력과 과학적 탐구능력 발달 및 태도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이순아·임성만, 2021: 473). 학습 효율성이 높은 것은 이해와 참여도를 보장하기 때문인데, 보여주지 못하는 장면을 표현해내어 말로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한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장면을 이해시킨다. 요즘에는 사회적 이슈나 현실 문제를 다루는 그림책이 점차 늘어나 우리 주변의 현실적인 문제들이나 정치적 이슈에 이르기까지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안지성, 2020: 451). 그리고 모든 학습자가 각자가 이해한 정도에 따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학습의 공백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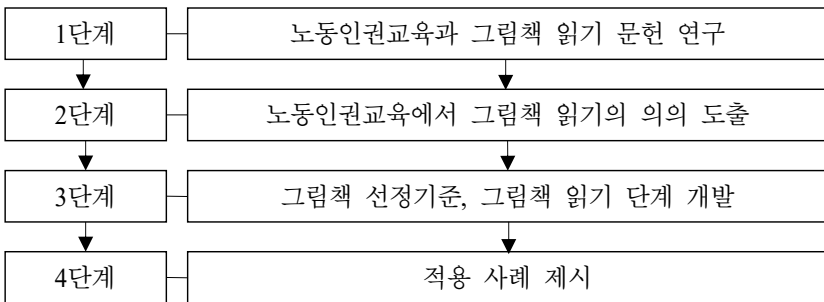
1)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제주4·3 평화 인권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그림책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연수를 진행했다(국제뉴스 2022.04.13.). 비상티스쿨에서는 ‘그림책 작가들과 함께 그리는 그림책 수업’ 직무연수(30시간)가 티처빌에서는 생활지도를 위한(15시간), 아이스크림원격교육연수원에서는 ‘놀이와 질문이 함께하는 감동의 그림책 수업’(30시간), 에듀니티에서는 ‘학급에서 활용하는 그림책 이야기’(30시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도 ‘그림책으로 마음 열기’(15시간) 등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 구성을 위한 연수가 초·중등 교원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다.

거의 생기지 않는다. 어려운 주제더라도 그림책을 활용한 경우에는 학습자마다 자신의 배경지식을 토대로 끄집어내기 때문이다. 그림책은 특정 발달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신체,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등 전반적인 학습자의 발달과 교육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고,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학습자가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경험을 제공하며, 최근에는 다원화 사회의 요구와 시대상황을 반영한 사회, 역사교육, 다문화 교육, 인성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그림책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이순아·임성만, 2021: 473).

그림책을 교과별로 적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현장 사례가 담긴 서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공통교육과정인 초·중등 교육에서는 유아교육 분야처럼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림책 자체에 대한 연구와 다양한 이론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그림책과 관련된 초등교육 분야는 꾸준히 연구되어왔으며, 2010년을 기점으로 연구물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유아교육 분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이순아·임성만, 2021: 483). 사회과교육에서도 문학 활용은 경제나 다문화와 같은 특정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그림책 활용의 구체적인 전략이나 방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이경윤, 2021: 464). 이에 이경윤(2021)은 초등 사회과 교과서의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로서 그림책을 조명하고 그림책 활용의 의의 및 방안을 사례를 구성하여 제안하였다. 그러나 교사가 교수학습에서 활용할 그림책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한 방법이나 그림책을 활용하는 이론적 틀이 제시되지 않아 초등 사회과 수업의 그림책 활용 사례 및 다른 교수학습활동 구성을 위한 참고에 그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노동인권교육에서 그림책을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거로서 그림책 선정기준과 그림책 활용 단계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노동인권교육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그림책을 선정하는 기준과 그림책 읽기 단계를 도출할 수 있는 관련 문헌 연구를 우선적으로 실행한다. 우선 노동인권교육에서 그림책 읽기의 의의를 도출한 후,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그림책 선정기준과 읽기 단계를 개발하는 연구를 실행한다. 끝으로 개발된 선정기준과 읽기 단계를 적용하여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그림책 읽기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노동인권교육에서의 그림책 읽기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1>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그림책 읽기 방안 연구 절차

## II. 노동인권교육과 그림책 읽기

### 1. 노동인권교육의 정의

‘노동인권교육’이라는 용어를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2014. 7. 15.)’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 조건에 관한 권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사생활의 자유 등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 옹호와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노동인권과 관련된 모든 교육”으로 처음 제시했다.<sup>2)</sup> 이후 노동인권교육의 정의는 ‘노동’과 ‘인권’, 그리고 ‘교육’의 관계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약간 있지만 공통적으로 지식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감수성과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노동인권교육을 지향했다(이서영, 2021: 35-36).

인권교육 활성화 이후 대두된 노동인권교육은 인권교육의 목적이나 방법을 적용해 유네스코(UNESCO) 인권교육훈련선언(2011.3.23.)<sup>3)</sup>에 의거, 자신에게 부여되고 보장된 노동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타인의 노동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태도를 갖춰 노동 존중의 태도 형성을 추구한다(이서영, 2022; 송태수 외, 2020). 이와 같은 노동인권교육 목적 실현을 위해 노동인권교육의 구체적인 목표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3요소로 세분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인권감수성을 사전적으로 요구한다(이서영, 2022; 송태수 외, 2020). 노동인권감수성은 노동인권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노동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인식하는 과정으로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의 역량이 절차적 지식으로 작용하여 가치 판단에서부터 실행까지를 가능하게 한다(이서영, 2022; 송태수

---

2)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률안에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2020. 6. 19. 강병원의원 대표발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2021. 3. 9.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학교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021. 9. 2. 윤미향의원 대표발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1. 6. 18.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1. 6. 18.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1. 10. 29. 이탄희의원 대표발의)이 있다.

3) 유네스코 ‘인권교육훈련선언’에서는 인권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Human Rights), 인권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 인권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Human Rights)을 지향한다. 인권에 관한 지식, 인권 기준 및 원칙, 인권보호의 토대가 되는 가치관과 인권보호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해하는 것을 토대로, 인권교육이 교육자와 학습자 모두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을 통해, 인권교육의 목적이 인권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인권을 지향해야 함을 밝힌다.

외,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의 기초로 노동인권감수성을 두고 지식과 기능, 감정과 행동을 포괄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감수성을 토대로 노동현장에서 노동자가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를 비롯하여 대한민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알고 자기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줄 알며 동시에 다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줄 알고 나아가 노동 존중 사회에 이바지하는 교육이다(이서영, 2022: 163). 이후 논의는 본 정의에 기반하여 노동인권교육의 사전 조건으로서 노동인권감수성, 다양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지식과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행동, 그리고 노동인권 존중 사회를 궁극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노동인권교육의 요소로 삼는다.

## 2. 노동인권교육에서 그림책 읽기의 가능성과 의의

‘근로자’라는 용어를 더 선호했던 사회에서 노동은 부정적이고 어두운 대상이었기에 지금 이 순간도 충실히 자신의 삶을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은 학생들에게 가르쳐지지 못했다. 그래서 노동의 어려운 여건, 때로는 따가운 시선을 받는 고충은 학생들과 이야기하기 힘들다. 게다가 사회과나 기술과 등의 교과교육이 아니므로 학교 교육과정에서 시수 편성이나 교육과정 구성이 쉽지 않아 실제로 수업으로 구현하기가 어렵다. 또한 범교과학습주제 중 ‘민주시민교육’이나 ‘인권교육’과 같은 주제 내에 넣을 수는 있으나 이미 기존에 다루는 내용이 많아서 충분한 노동인권교육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처럼 다루기 힘든 주제이자 교육과정에서도 소외된 내용이었던 노동인권은 무엇으로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우선 접근성이 높아야 한다는 점에서 누구나 좋아하도록 글은 짧

고 그림이 많은 그림책이 효과적인 자료가 된다. 그리고 그림책에 묘사되는 장면은 다양한 관점에서 읽고 읽힐 수 있기에, 노동인권과 같이 사회·경제·문화 상황이 복잡적이고 역동적이며 갈등을 유발하는 내용을 다루기에도 적합하다. 그림책은 어려운 대화를 지원할 수 있는 부드러운 진입점을 제공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이며, 학생들은 창의적으로 사회 정의와 형평성에 관련된 더 깊은 문제를 탐구하며, 소외된 독자들을 참여시키고, 교실에서 평등과 형평성을 제공한다 (Carolyn Clarke & Jo Anne Broders, 2022, 161).

그림책은 인간의 삶과 생활을 반영하여 현실에서의 의식과 가치를 어린아이에게 전달하는 매체가 된다. 그래서 그림책 텍스트들은 대개 성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이 세상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표현된다.

점차 노동인권 관련 그림책의 국내 출판이 늘고 있으며, 어떤 출판사는 노동인권을 주제로 한 그림책을 지속적으로 출간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노동인권을 생각해보게 한다. 그리고 교사들은 현장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위해 그림책을 사용한 수업을 실천한다. 교사들이 함께 출판한 노동인권교육 교수학습에 관한 도서에서도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이 여러 종 보이고, 시도교육청과 각종 단체에서도 노동인권 교수학습 자료를 다수 개발하면서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 서울시교육청(2020)에서 발간한 ‘초등학교 교육과정 노동인권 지도자료’는 12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4개 주제(30%)가 그림책을 활용하였다. 노동인권 지도자료에 그림책을 활용한 활동은 주인공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 판단하기, 그림책에 나타난 상황과 학생의 상황 비교하기, 장면 속에서 ‘노동’ 찾기, 그림책에 나타난 방법 현실에 적용하기 등이 중심이 된다. 이 활동들은 감정이입 및 공감의 방식과 노동 관련 지식 이해의 방식이 활동으로 구현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아동은 그림책의 이야기 속에 동화되고 이러한 가상세계에 몰입됨으로써 자신들의 내밀한 심리를 체험하고 경험한다(안지성,

2020: 451). 문학적 인물은 실제 사람보다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안지성, 2020: 452), 인물들 간의 관계성은 그림책을 읽는 아동 및 성인 독자들이 자신을 둘러싼 인간관계를 이해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대개의 지도자료가 지식을 토대로 기능을 활용하고 가치·태도를 기르는 형태를 취하는데 반하여, 해당 자료의 경우에는 감성적인 접근을 토대로 지식을 습득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학생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노동’을 학생의 삶과 관련 짓고 명확하게 노동 관련 지식을 이해하도록 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관점을 갖도록 한다. 그림책은 학생들이 그들 자신, 다른 사람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 주변의 세계와의 관계를 의미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Carolyn Clarke & Jo Anne Broders, 2022: 160). 더하여 그림책은 독자에게 자신들의 정서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게 함으로써 성장과정에 핵심적인 요소인 역동성을 제공한다(안지성, 2020: 452). 즉, 재미있는 그림책에서 묘사되는 주인공과 상황을 공감하면서 관련 지식을 이해하게 되므로 그림책 읽기 방법은 학생들에게 어려운 노동인권 내용을 지도하는 데에 있어 다른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보다 탁월함을 보여준다.

<표 1> 그림책을 사용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지도자료 분석

그림책 제목	학습 주제	교수학습 과정	세부 활동
프레드릭	노동의 의미	동기유발	장면 이야기 나누기
		전개-활동 3	프레드릭이 노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견 나누기
메이의 이야기	노동의 역사	전개	줄거리 살피기 주인공의 감정 생각하기 인물의 행동에 대한 의견 나누기 우리나라와 메이의 상황 비교하기 뒷이야기 만들기

그림책 제목	학습 주제	교수학습 과정	세부 활동
			노동환경의 변화 상상하기 바꿔 읽기 노동절의 역사 읽고 생각 나누기 노동인권 신장을 위한 사람들의 노력 이해 하고 의미 생각하기
파란 티셔츠의 여행	노동과 삶	전개	목화가 티셔츠로 만들어져 오는 과정 살펴보기 생산과정과 노동, 문제점 등 이야기 나누기 티셔츠가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숨어있 는 노동의 과정 찾아보기 노동인권 침해 요소 찾기 상품이 나에게 오기까지 많은 노동과 노동 자들이 관련되어 있음을 이해하기 다양한 노동인권 문제 찾고 원인 파악하기 다른 나라의 노동인권 문제와 나의 관련성 생각하기 공정무역과 윤리적 소비 이해하기 노동인권을 생각하는 소비 아이디어 만들기
		정리	책에서 제시된 노동 존중의 방법을 생각하 며 노동인권을 생각한 생활 속 실천 방법 다짐하기
행복한 청소부	노동의 중요성, 행복한 노동을 위한 조건	전개	책표지 속 주인공의 모습에서 내가 행복을 느끼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주인공이 자신의 일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 고 그에 대한 자신의 판단 이야기하기 내가 주인공이라면 대학에서 강연하는 제안 에 대하여 어떻게 선택했을지 이야기 나누기
		정리	주인공처럼 행복하게 노동하려면, 우리 사 회가 행복한 노동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기

### III.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그림책 읽기 방안

#### 1. 그림책 선정기준

그림책 선정기준 설정은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수많은 교수·학습자료 중에서 차시 수업에 적합한 자료를 정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기본적인 자료들이 일련의 기준에 의거하여 정리가 되어야 한다. 이때 공신력 있는 기관의 추천도서 목록을 활용하거나 베스트셀러에서 추천하는 도서들을 활용하는 것은 수업을 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추천도서 대부분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목적에 따라 그림책을 선정하고 정선하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에 의거할 필요가 있다.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그림책 읽기를 할 때에도 수업에 적합한 그림책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 있을 때, 이를 토대로 정해진 그림책의 경우에는 수업자가 스스로 타당성과 적합성을 확보하여 수업에 임할 수 있다. 이에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그림책 선정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그림책 선정기준을 검토하였다.

박윤경(2006, 37)은 편견 감소 수업을 위한 아동 문학의 선정기준으로써 민족 및 인종 문제를 주요한 테마로 다루는 주제인지(주제 및 내용 적합성), 민족 및 인종에 대한 시각이 문화 다원적인지(시각 적합성), 초등 수준의 아동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지(발달 적합성)를 적용하였다. 김민정(2017: 38-39)은 Lauritzen과 Jaeger(1997)에 의거해, 다문화교육 텍스트 선정기준으로서 목표와의 적합성, 불합리한 차별 상황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탐구 가능성, 소수 집단에 대하여 잠재된 차별 인식을 다루는 학문적인 관점,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자의 관점에서 적절한 것을 다문화교육에서 좋은 내러티브의 선정기준이라고 보았다. 다문화교육 텍스트 선정기준으로서 ‘학문적 관점’이라는 표현은 내용 및 형식에서 학문의 주된 철학을 담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기준으로서 다문화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요소

로 볼 수 있다. 이는 박윤경(2006)의 ‘시각 적합성’과 유사하면서 좀 더 내용 적합성을 포함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민정(2017)의 선정기준은 목표 적합성, 탐구 가능성, 학습자 적합성을 다루면서 다문화교육이 수업으로 구현되는 현장에 좀 더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나다움어린이책’은 대표적인 양성평등 그림책 목록으로, 3개 가치(자기긍정, 다양성, 공존), 10가지 범주(주체성, 몸의 이해, 일의 세계, 가족, 사회적 약자, 표현, 무혐오, 사회적 인정, 안전, 연대) 및 세부 내용을 선정기준으로 밝히고 있다(김방환, 윤신원, 2020: 91). ‘나다움어린이책’은 박윤경(2006)의 선정기준 중 ‘주제 및 내용 적합성’에 해당하는 기준만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나 세부내용을 읽어보면 등장인물의 성별, 상황 등의 특징이 구체적으로 설정이 되어 박윤경(2006)의 ‘시각 적합성’ 기준도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은 수업 장면에 대한 고려보다는 구체적인 내용 분류에 집중한 것이다. 한편, 사회과 수업에 그림책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경운(2021)은 교육과정 적합성, 학습자 적합성, 간접 경험 촉진 여부를 선정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내용 적합성과 독서 대상의 인지 발달 적합성은 사회과교육이라는 내용 범위에서 특수적인 성격을 반영하기보다는 내용 일반적인 선정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감 유도 및 간접 경험 촉진 여부’기준은 사회과교육에서의 그림책 사용이 교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사회 현상 및 장면을 그림과 서사를 통하여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므로 특징적인 기준이 된다.

이상의 연구들을 토대로,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그림책 선정기준을 수립할 때 반영할 요소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림책은 노동인권교육 현장에서 교수학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교육적 목적과 방법에 부합해야 한다. 둘째, 그림책의 서사와 그림은 노동인권교육의 내용 특수성을 포함해야 한다. 노동인권교육은 노동인권 감수성을 토대로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노동자의 권리를 알고 스스로 행사하며 다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시민적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노동인권교육의 정의를 기반으로 선정기준이 범주화하고 세부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의 현장을 담을 수 있으면서 노동인권교육의 내용 특수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그림책을 선정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 감수성 함양 여부’, ‘노동인권 지식 적합성’, ‘노동인권 실천 가능성 여부’를 그림책 선정기준 범주로 제시한다(표 4). 세 가지 범주 기준에 모두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해당 그림책을 노동인권교육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표 2>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그림책 선정기준

범주	세부 내용(예)
노동인권교육 지식 적합성	노동자의 권리, 법률 및 국제 관습법에서의 권리 등 알기
노동인권감수성 함양 여부	노동인권 문제 상황 지각하기, 가능한 행동 선택과 그 영향 상상하기, 노동인권 문제 스스로 해결 책임지기
노동인권 실천 가능성 여부	노동자의 권리 스스로 행사하기, 다른 노동자의 권리 보호하기, 노동존중 사회 구현하기

## 2. 그림책 읽기 단계

교사가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림책을 선정하고 나면, 학생과 함께 그림책을 읽는 행위를 통하여 본격적인 교수학습이 이뤄진다. 이경운(2021)은 사회과 그림책 읽기 교수학습 과정을 읽기 전-읽기 중-읽기 후의 단계로 나누고, 읽기 전 단계에서 의미구조도 만들기와 그림책 표지 감상하기 활동, 읽기 단계에서 내용 이해하기, 주인공의 기분 이해하기, 등장인물의 마음 이해하기 활동을 전개한 뒤, 읽기 후 단계에서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하여 모둠에서 돌아가며 답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읽기 단계는 이주화(2014)가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문학 활용 수업 절차를 반응 형성을 위한 동기유발 후, 반응 형성, 반응 명료화, 반응 확장 순서로 구분한 것과 유사

하며 이는 국어과 교수학습모형 중 반응 중심 학습모형에 해당한다. 즉, 국어과에서 주로 문학 수업 모형으로서 제시한 반응 중심 학습모형에 맞추어 텍스트에 나타난 정보 습득 보다는 독자가 자유롭게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중시하는 과정으로 설정한 것이다. 한편, 이지영(2021)은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그림책 읽기가 그림책 읽기 방법을 익혀 그림책을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지만 세계시민교육이 가능하다고 보고, 읽기 방법을 톨랑 바르트와 마리아 니콜라예바의 연구에서 도출한다. 그래서 이야기 구조 파악하기, 인물 이해하기, 은유와 상징 해석하기, 맥락으로 해석하기, 상호 텍스트적으로 확장하기 순으로 그림책을 읽는다(이지영, 2021: 267). 그리고 자연스럽게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질문과 탐구로 이어지면서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내용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병행된다(이지영, 2021: 267).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그림책 읽기는 그림책을 온전히 읽어내는 과정 속에서 그림책에서 제기하는 사회적 이슈를 세계시민교육과 관련지어 탐구하는 한편 상호 텍스트적 읽기와 연결시키는 방법이다(이지영, 2021: 268).

그림책 읽기는 글로만 된 책 읽기와는 차이가 있다. 그림책은 그림과 글이 시각 요소와 서사 요소로 구분되기도 하며, 때로는 그림과 글이 동시에 시각 요소가 되기도 하고 서사 요소가 되기도 하므로 줄글 책과는 구성 요소부터 다르다. 그래서 그림책 읽기의 단계도 기존의 읽기와 달라질 수 있다. 그림책 연구자들은 해석학적 순환 과정을 통하여 그림책 읽기를 강조하여, 전체적으로 책을 읽은 뒤 세부적인 사항까지 읽어서 더 잘 이해하게 된 상태에서 다시 전체를 읽는, 일련의 순환 과정을 반복하면서, 글에서 그림으로, 다시 그림에서 글로, 연쇄적으로 이해의 폭을 끊임없이 확장시켜 나간다(이지영, 2021: 248). 이와 같이 이해가 확장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리코르의 텍스트 해석학을 토대로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그림책 읽기 방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리코르는 읽기를 통한 자아의 형성과정으로 ‘미메시스4)’라고 한다.

미메시스 I - 미메시스 II - 미메시스 III의 과정을 통해 자아는 자기와 세계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힌다는 것이다. 미메시스 I은 텍스트의 표면적 의미를 아는 차원으로 삶과 행동에 대해서 체험된 시간의 사건에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메시스 II는 텍스트의 심층적 의미를 해석하는 차원으로 이야기에 내포된 상징과 은유의 심층적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주체가 ‘상상의 변주’(variations imaginatives)와 ‘의미론적 혁신’(innovation semantique)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실생활의 사건들이 구조화된 스토리가 되고, 행동의 계열체가 통합체가 되며, 시간의 연대기적 차원이 비연대기적 차원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미메시스 III은 이전의 차원에 의해 텍스트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태로 진정한 반성과 성찰이 이루어져서 실천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차원이다. 리코르의 미메시스 이론에서 텍스트 읽기행위를 통해 미메시스에 의한 자아형성의 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를 정립했다. 이와 같은 해석학적 순환의 과정을 교수·학습적 요소들의 작용으로 분절하여 구성한다면 설명, 이해가 계속해서 발전해나가 적용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표 3).

<표 3> 리코르의 텍스트 해석학을 토대로 도출한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그림책 읽기 단계

리코르의 3중의 미메시스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그림책 읽기	
미메시스 I - 저자의 의도 파악	설명하기	보이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기(만들기)와 답하기
미메시스 II - 텍스트의 세계 이해	이해하기	보이지 않지만 관련된 내용 질문하기(만들기)와 답하기
미메시스 III - 독자의 자기이해	적용하기	나의 생활 속에서 찾기, 나의 삶에서 실천하기

4) 미메시스는 재현으로 종종 번역하기도 하지만 본연의 의미를 포괄하기 어려우므로 그대로 표기한다. 미메시스는 처음에 제의를 통한 신화의 모방을 가리키는 말로 플라톤에서부터 사용되어왔다. 리코르가 사용한 미메시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제시한 개념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 이론을 결합한 것으로 삶과 이야기를 한꺼번에 포괄한다.

즉,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그림책 읽기는 학습자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서, 설명하기-이해하기-적용하기의 단계를 거쳐 노동인권감수성에 기초하여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설정한다. ‘설명하기’는 미메시스Ⅰ이 삶과 행동에 대해서 체험된 시간의 사건에서 이해하는 것에 기초한다. 행위의 의미를 이해해야 진정한 의미의 재현이 삶 속에서 가능하므로 이에 텍스트의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설명하기’를 첫 단계로 설정하였다. 텍스트에 드러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할 수 있도록 알고 있는지를 목표로 한다. ‘이해하기’는 미메시스Ⅱ가 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통해 이야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텍스트의 세계와 더불어 자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의 줄거리 구성을 시간적 순서에서 나아가 논리적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는 것을 토대로 한다.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고, 왜 이 일이 발생했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등과 같은 자신의 의견을 질문한다. 이러한 읽기의 과정은 ‘이해’와 ‘설명’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해석을 기반으로 한다. 끝으로 ‘적용하기’는 자기화의 단계인 미메시스Ⅲ로 텍스트의 세계와 독자의 세계가 분리되지 않고 진정한 반성과 성찰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자신의 생각과 말에 그치지 않고, 자기 삶과 생활 속에서의 변화가 이뤄지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생각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촉발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사회참여에 이르게 한다.

이상의 그림책 읽기 단계는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역량과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연계된다. ‘설명하기’에서는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는 ‘지식정보처리 역량’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 사고 역량’이 발휘되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한다. ‘이해하기’에서는 ‘협력적 소통 역량’을 발휘하여 노동 상황의 다양한 문제 속에서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다. 노동인권 관련 공감 능력이 ‘심미적 감성 역량’을 통해 향유된다. ‘적용하기’에서는 ‘공동체 역량

‘으로 노동 공동체의 인권 보장을 위해 지역·국가·세계시민으로서 요구되는 공동체적 태도와 공공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가 이뤄진다. 동시에 ‘자기관리 역량’을 통해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 및 노동 상황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기 위해 자기주도적으로 실천한다. 단계별로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 역량은 구분되나, 그림책 읽기의 전 과정에서 핵심역량을 총체적으로 함양할 수 있다.

#### IV.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그림책 읽기 사례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그림책 읽기는 그림책을 읽으면서 그림책에서 나타나는 사회 현상을 비판적 사고 역량을 통해 찾고, 공감과 성찰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과 존재의 문제와 마주하여 문제해결능력을 발휘하여 자기 삶과 생활에서 해결책을 실천으로 옮기는 방법이다. 본 장에서는 앞서 개발한 선정기준과 읽기 단계를 적용하여 손 텐의 『매미』를 읽어보는 사례를 제시하여, 현장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그림책 읽기를 실행할 때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우선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사례 그림책 내용을 분석하여 적합성을 타진한다(표 4). 이후 그림책 읽기 단계에 따라 그림책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하며, 실천에 옮기기 위해 질문을 만드는 과정을 거친다.

<표 4>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그림책 선정기준 적용

범주	그림책『매미』 세부 내용
노동인권교육 지식 적합성	매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한 사회구조적 문제
노동인권감수성 함양 여부	현대사회에서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 차별받는 소수자에 대한 공감
노동인권 실천 가능성 여부	연대 탈바꿈(변화)

## 1. 사례 그림책과 작가 소개 : 손 텐의 ‘매미’(Cicada by Shaun Tan)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얼룩진 이 시대에 경종을 울리는 그림책  
인간들에게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매미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바로 ‘나’일 수도 있다!

위 글은 어느 출판사의 서평이다(교보문고, 2019). 이 작품은 현대 사회에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매미』를 통하여 드러내고 있다. 매미가 일하는 직장 속에서 매미가 받는 차별은 노동자가 당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비정규직이 경험하는 것이고, 또 한 편으로는 이주노동자가 겪는 일이기도 하다. 벽 틈새가 휴게공간인 청소노동자이며 다른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도 일하는 택배원이나 음식 배달원이기도 하다. 심각한 노동환경 속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을 바라보는 시각을 담은 그림책 『매미』는 현실을 꼭 닮아 있고 담아져 있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손 텐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말레이시아에서 오스트레일리아로 이민을 왔고 처음에는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힘들고 고된 일들을 주로 하였다고 한다. 성실하고 근면하여 곧 몇몇 회사에서 건축가로 일하게 되었으나 영어를 못하는 이민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실력과 노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에서 손 텐은 ‘매미’ 캐릭터의 모티브를 얻었다. 그림책 “매미”의 기본 아이디어는 손 텐이 2005년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수백 개의 창문이 달려있는 회색 건물을 보고 그 건물에는 칸막이마다 곤충이나 벌들이 일하고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친구에게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손 텐은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변신』의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에서 매미를 떠올렸다. 그레고르가 사회 속에서 기능으로만 평가되었듯이 매미도 그림책 속에서 기능으로만 사용되고 쓸모가 없어지는 순간 버려졌다. 조지 오웰의 『동물 농장』, 『1984』 등의 영향도 받아

사회구조적인 힘을 표현하였다.

손 텐은 미국의 주기매미에 대한 보도를 보고 매미를 소재로 하게 되었다고 한다. 미국 중서부에는 17년마다 수십억 마리의 매미 떼가 기습한다. 주기매미라고 부르는 이 매미는 산란되어 유충 상태로 땅 속에서 영양분을 빨아먹으며 17년을 지낸다. 그리고 탈피하는 해 여름이 되어서야 땅 밖으로 나간다. 수컷 매미는 암컷을 유인하기 위해 복부에 발달한 발음기관으로 소리를 내서 우는데, 이 때 수컷 매미 한 마리가 내는 소리는 70~90데시벨의 소음으로 매미의 구애소리는 시끄러워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매미가 어둠 속에서 보내는 17년은 사람들이 첫 직장을 얻어 퇴직하기까지의 시간을 패러디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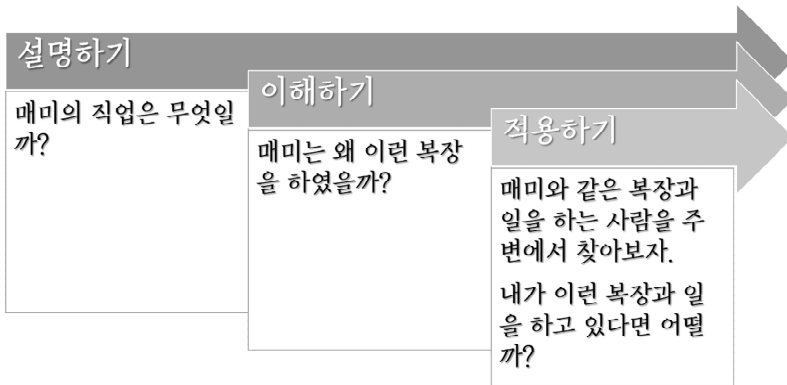
<표 5> 사례 그림책 특성

매미 Cicada	
글·그림 작가	손 텐(Shaun Tan)
역자	김경연
출판사	폴빛
출판년도(초판, 원저)	2019년(2018년)
총 장면 수(s)	16
크기 및 중량	225*293*15mm (448g)

## 2.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그림책 읽기 사례

“글이든, 이야기든, 영화든. 모든 예술은 보는 이가 질문을 품게 해야 한다.”는 손 텐의 말처럼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읽기 방법도 동일한 방식을 취한다. 사실 이러한 질문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바탕에는 정보가 불충분하다거나 기존의 생각과 다르다거나 또는 상황 속에 완전 몰입하여 정말 궁금해진다거나 해야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기초하기 때문에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삶에 적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그림책 읽기는 <그림 2>와 같이 3단계로 이뤄진다. 그림책은 짧은 텍스트와 그림으로 각 장면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각 장면에서 보이는 것, 즉 그림과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질문을 만들고 이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하여 장면이 설명된다. 보이는 정보 너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질문을 만들고 이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장면이 이해된다. 끝으로 그림과 글 텍스트를 통해 자기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생활과 삶에 적용한다. 세 단계에 걸쳐 학습자는 상상의 변주와 변증법적 해석을 경험하게 된다.



<그림 2> s1을 토대로 그림책 읽기 예시

사례 그림책 읽기는 표지에서부터 시작하여 각 장면을 분절하여 단계에 따라 읽는 방법을 취했다.

(1) 앞 표지 : 매미 손에는 날장의 서류만 남았고 나머지는 바닥에 이곳저곳 흩어져 있다.

(2) 앞 면지 : 회색 고층 건물들로 가득한 도시의 모습이다.

(3) 장면(scene)<sup>5)</sup>

s1 : 가슴과 배 앞에 네 개의 손이 가지런히 모여 공수하는 것 같다. 흰 와이셔츠, 검정 넥타이에 주름진 회색 양복이 사무직 회사원임을 보여준다. 양복 깃에 달린 사진과 이름이 적힌 바코드 신분증은 매미가 회사의 구성원임을 알려준다.

s2 : 매미는 회색 칸막이로 된 자기 사무실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일을 아파서 쉬는 날도 없이, 실수 한 번 하지 않고 17년 동안 해왔다. 사무실에는 시계와 컴퓨터, 일거리와 서랍장, 책상이 전부다. 매미는 인간의 일 중 반복적이고 단순한 일을 담당하고 있다.

s3 : 매미는 인간이 아니기에 17년을 일하고도 승진 한 번 못한다. 매미는 양복 입은 인간의 뒷짐 지고 있는 뒷모습만을 바라본다.

s4 : 매미는 인간과 화장실을 같이 쓸 수 없기에 열두 번 길을 건너 공중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다. 화장실에 갔다 오는 시간은 임금에서 제외된다. 매미가 높이 손을 뻗어도 승강기 탑승 버튼에 닿지 않는다.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 매미를 인간 직원은 무심히 지나친다.

s5 : 벌집처럼 촘촘한 칸막이 한 칸에서 일하고 있는 매미는 인간이 끝내지 않은 일을 늦게까지 남아서라도 끝내지만 아무도 매미에게 감사를 전하지 않는다.

s6 : 인간 동료가 매미를 짓밟고 나머지 인간은 말리지도 않는다. 인간은 매미를 바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미의 표정은 변하지 않는다. 데이터를 입력할 때도 인간에게 짓밟힐 때도 나뭇잎을 먹을 때도 매미의 표정은 무덤덤하다. 무표정한 매미는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있었던 일이기에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거나 이에 대해 흥분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 묵묵히 당하고 참는다.

s7 : 매미는 집을 빌릴 형편이 되지 못해 사무실 벽 틈에 살고 있지만 회사는 모른 채한다. 비좁은 벽장에 서서 까만 눈을 동그랗게

5) 장면(scene)은 이 글에서 앞으로 s로 표기한다.

쁜 채 나뭇잎을 먹고 있다. 매미는 식사 중인데도 다른 누구와의 교류 없이 홀로 긴장된 모습이다. 휴식 시간이라고 하기에는 환경 자체가 편안함을 주지 못한다. 여자화장실의 한 칸을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을 때나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는 청소노동자의 모습이 떠오른다.

s8 : 매미가 십칠 년을 일하고 은퇴하는데 아무도 축하하거나 아쉬워하지 않는다. 다만, 상사는 권위적인 자세로 매미에게 자리 정리를 명령한다.

s9 : 매미가 안녕을 고하기 위하여 어딘가로 이동한다. 매미는 회색 건물 내부의 끝도 없는 계단을 올라간다. 계단은 난간조차 없어 위태로워 보인다. 17년 동안 일하고 퇴사하는데 짐이 하나도 없다.

s10 : 매미가 옥상에 올라가 난간에 위태롭게 섰다. 건물 밖도 뿌연 안개로 가득하다.

이 장면은 독자로 하여금 매미와 함께 나락에 떨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면서 우울함으로 빠져들게 한다. 동시에 ‘반전은 없을까?’ 하는 궁금증도 든다. 즉, 독자가 새롭게 구성되는 이야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독자는 이야기가 자신이 알고 있는 관념이나 고정된 생각처럼 정해진 하나의 결말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념이나 아이디어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읽게 되며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s11 : 매미의 머리와 등이 갈라지면서 붉은 빛이 몸 안에서 밖으로 새어 나온다. 매미의 껍질이 갈라지면서 변화가 시작된다. 17년 동안 자신을 가두고 있던 껍데기를 가르고 스스로 매미는 변화를 시도한다.

s12 : 붉은 빛이 나오던 자리에서 붉은 매미가 다리 두 쌍을 빼내고 나온다. 애벌레였던 매미가 날개 달린 진짜 매미로 바뀌어 나온다.

s13 : 매미의 몸에서 붉은 매미가 완전히 빠져나와 하늘로 날아오른다. 주변에 또 다른 매미 6마리가 보인다. 매미의 몸은 색을 잃었고 고 속은 텅 비어 그 자리에 그대로 서있다.

s14 :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오른 무수한 붉은 매미가 회색 하늘에 가득하다. 무수한 매미들이 표가 나지 않게 회색 건물 곳곳에 있었다가 17년의 시간이 지나 하늘에서 만나 연대한다.

s15 : 매미들은 모두 날아서 숲으로 돌아가 가끔 인간을 생각하면 웃음을 멈출 수 없다. 17년 동안 무표정했던 매미는 드디어 웃는다. 매미는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껍질을 벗고 빨간 매미로 탈바꿈하는데,

s16 : 바닥에 떨어진 매미의 사원증에서 ‘매미’ 이름이 지워졌다. 마츠오 바쇼의 하이쿠 ‘고요함이여 바위에 스며드는 매미의 소리’가 적혀 있다.

(4) 뒷 면지 : 해질녘 숲의 모습이다. 각종 나무와 풀로 가득한 숲이 다채로운 색으로 표현되었다. 작가가 창조한 그림책 속의 새로운 시공간인 숲은 기존의 공간이 회색으로 뒤덮여있었던 것에 반하여 명도는 낮지만 다양한 색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전까지 우울했던 이야기와 독자의 현실 사이에서 새로운 세계를 형성한다. 작가는 작품 속에서 완벽하게 구조화된 의미를 전달하지 않고 독자가 독자의 현실적 시공간과 이야기의 시공간을 연결하도록 한다.

(5) 뒷 표지 : ‘매미가 이야기한다. 이야기는 좋다. 이야기는 단순하다. 인간조차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다. 툭 툭 툭!’ 뒷 표지에서 볼 수 있는 텍스트에서도 이야기의 강점을 말한다.

<표 6>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그림책 읽기 질문 사례

장면	설명하기	이해하기	적용하기
s1	매미의 직업은 무엇일까?	매미는 왜 이런 복장을 하였을까?	매미와 같은 복장을 한 사람을 주변에서 찾아보자. 내가 매미와 같은 복장을 하고 있다면 어떨까?

24 인권연구 제6권 제1호(2023. 6.)

장면	설명하기	이해하기	적용하기
s2	매미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매미는 왜 회사에 다닐까? 매미가 아파서 쉬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나는 좁고 답답한 공간에서 단순한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야 한다면 어떻게?
s3	양복 입은 인간의 뒷집 지고 있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매미의 기분은 어떻게?	성실하게 일해도 승진하지 못하는 매미의 기분은 어떻게? 매미도 직원인데 왜 인사부에서 관리하지 않는가?	오랜 기간 일한 직장에서 승진 대상이 아니라고 고지한다면 어떻게? 상사가 나를 마주볼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s4	매미가 인간과 다르게 차별받는 것은 무엇인가?	화장실에 갔다 오는 시간은 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 왜 매미만 차별받을까? 매미는 인간과 화장실을 왜 같이 쓸 수 없을까? 인간 직원은 무심히 매미를 지나칠까?	차별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할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차별은 무엇일까? 이와 유사한 현대 사회 문제는 무엇인가?
s5	매미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인간이 끝내지 않은 일을 매미가 끝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매미는 왜 감사받지 못하는가?	내 일을 대신 마무리해준 사람에게 가져야 하는 감정은 무엇인가?
s6	인간 동료들이 매미에게 무슨 짓을 하는가?	인간들은 매미를 왜 괴롭히는가? 17년 동안이나 매미가 괴롭힘을 참아온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을 것인가?
s7	매미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	왜 매미는 혼자 있는가? 매미의 현재 환경을 평가한다면?	매미와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나는 그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s8	매미가 은퇴하는 날에 하는 일은 무엇인가?	매미는 왜 은퇴하는가? 매미의 은퇴에 대한 주변의 반응은 어떠한가?	17년간의 노고에 대하여 주위에서 아무렇지 않게 여길 때 내 기분은 어떻게?
s9	17년간 일한 매미가 퇴사하면서 가진 것은 무엇인가? 계단의 모습은 어떠한가?	계단을 오르는 매미의 심정은 어떻게? 매미는 어디로 가는 걸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질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장면	설명하기	이해하기	적용하기
s10	매미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매미의 심정은 어떨까? 매미는 무엇을 위해 가장 높은 층으로 오른 걸까?	나의 존엄이 무시당할 때,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s11	매미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가?	매미의 껍질이 갈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매미처럼 내가 변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고 싶은가?
s12	매미에게서 나오는 또 다른 매미의 모습은 어떠한가?	매미의 몸속에서 새로운 매미가 나오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애벌레에서 탈피하여 날개 달린 매미가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내게 일어난다면 어떨까?
s13	매미는 어디에 있는가?	텅 빈 매미와 날아오른 매미는 무엇이 다른가?	예전의 나의 모습에서 새로운 나의 모습을 비교해볼까?
s14	매미는 무엇을 하는가?	여러 마리의 매미가 함께 날아오른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바뀌고 어디로 갈 수 있을까?
s15	매미는 무엇을 하는가?	매미는 왜 웃는가? 17년 동안 일한 매미가 떠난 숲은 어디일까?	나도 매미처럼 웃을 수 있는가?
s16	매미의 사원증이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매미의 이름이 지워진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매미인가, 사람인가?

## V. 결론

‘누구나 실수를 두려워 하지만, 모두 다 실수를 한다.’ 이런 가르침을 전달할 때, 상징적 양식인 텍스트로만 나열이 된다면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그 때, 영상적 양식인 그림으로 잉크병의 뚜껑이 열려 흘러 생긴 자국만을 보여주지만 해도 학습자는 공감하게 된다. 그림책은 문자와 그림의 상보적 관계로 텍스트의 빈 곳을 서로 메우며 새로운 텍스트를 창조해낸다. 그림책이라는 텍스트는 그래서 교수·학습 자료로서 유용함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은 ‘지금, 여기’에서만 유행하는 것은 아니다. 코메니우스는 글자로 된 텍스트만을 강조해왔던 종래의 교수법에서 나아가 사물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그림과 함께 텍스트를 제공하는 교수법을 제시하고 직접 ‘세계도회’를 개발했다. 물론 당시에는 대상을 이해하기 쉽게 하는 삽화로써 글과 그림이 제공되는 책이었다. 이제

그림책에서의 그림은 그 자체로서 또 하나의 텍스트로 작용한다.

그림책은 보이는 대로 질문하며 읽기 시작한다. 돋보기를 들이밀고 보이는 것을 크게 키워 한 차례 들여다보고 나면, 보이는 것의 아래 숨어져 있던 것이 들쭉인다. 그러면 숨은그림찾기 마냥 장면 속에 숨겨진 생각들을 발견하게 된다. 찾을 만큼 찾은 뒤에 자리에 앉아 찾은 것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 그 속에 ‘나’가 보인다. 물론 스스로 ‘나’가 자취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찾는 수고로움이 필요하다. 그림책을 통해 ‘나’를 들여다보면서, 그림책을 읽기 전과 후가 달라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매 단계 엄청난 용기와 끈기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눈물을 닦아주거나 도닥여주어야 할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화를 주체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그림책 읽기는 질문을 매개로 나, 우리, 세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사유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그림을 통한 감각적 접근으로 풍부하게 상상할 수 있다. 나아가 그림책을 통한 성찰을 나의 이야기로 만들면서 내면화할 수 있다.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그림책 읽기는 학습자가 해석학적 순환 과정을 통하여 그림책을 읽으면서 그림책을 통해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자기 이해에 도달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자신의 생각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발판이 된다.

노동인권이라는 멀고 어려운 주제를 학생들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가깝고 쉬운 주제로 만드는 것이 선결과제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이라는 매체를 통해 주제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노동인권에 대한 탐구가 가능한 읽기를 제안해보았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방안은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일 뿐 정형은 아니다. 그러나 가르치고 배우는 모두가 노동인권을 가까이 그리고 깊이 할 수 있도록 타당한 준거로서 선정기준과 읽기 단계를 확보하므로 그림책 읽기는 노동인권교육의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손 탄의 「매미」를 읽고, 이창복(2021)은 “두 번째 삶을 멋지고 즐겁게 사는 데 재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흥미롭고 가치 있

는 일을 꾸준히 함으로써 만년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려는 일관된 의지와 노력이다.”는 성찰을 한다. 30년의 교수 생활을 마감하면서 매미가 변태하는 것처럼 두 번째 삶과 마주한 이창복은 노동과 삶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재정립하고 있다. 각자가 읽기 단계를 거치면서 자기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 다음의 삶이 조금 더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행위 할 수 있다면, 노동인권교육이 그 목표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논문접수일: 2023. 5. 23, 논문심사일: 2023. 6. 12, 게재확정일: 2023. 6. 14)

## 참고문헌

- 김민정. 2017. 『내러티브 활용 다문화수업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방환·윤신원. 2020. “‘나다움어린이책’에 수록된 양성평등 그림책 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1(2): 87-109.
- 박윤경. 2006. “민족 및 인종 편견 감소를 위한 초등 다문화교육 : 아동 문학을 활용한 간접 접촉.” 『초등사회과교육』. 18(2): 27-45.
- 서울시교육청. 2020. 『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 서울: 서울시교육청.
- 송태수·변섭·이수정·이원희. 2020.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와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안지성. 2020. “그림책 「앵그리맨」에 나타난 등장인물들의 관계성 분석.” 『교육발전』. (58): 449-473.
- 이경윤. 2021. “초등 사회과 수업에서 그림책 활용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1): 463-476.
- 이서영. 2014. 『자기이해를 위한 인문적 사회과교육』.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서영. 2021. “뉴스 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노동인권교육 담론 분석.” 『사회과교육연구』. 28(4): 33-45.
- 이서영. 2022. “노동인권교육 조례의 교육적 개선 연구.” 『시민교육연구』. 54(3): 159-185.
- 이순아·임성만. 2021. “그림책 관련 초등교육 연구 동향 및 그림책 활용 양상 연구.” 『한국초등교육』. 32(1): 471-492.
- 이주화. 2014. 『초등사회과 반응중심 문학텍스트 활용 수업이 세계시민성 함양에 미치는 효과- 세계 문제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 2021.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그림책 읽기 방법 연구- 손 태의 <도착>을 중심으로 -.” 『한국초등국어교육』. (70): 243-271.

- 이창복. 2021. 『어제보다 늙은, 내일보다 젊은』. 파주: 김영사.
- 손텐 누리집. <http://www.shauntan.net/>
- 교보문고. 2019. “매미 북 리뷰”,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mallGb=KOR&ejkGb=KOR&barcode=9791161721293>  
(2022.03.28.)
- 국제뉴스. 2022. “어려운 제주4.3 쉽게 다가선다, 다양한 그림책 활용”,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6592>  
(2022.04.14.)
- Carolyn Clarke & Jo Anne Broders. 2022. “The benefits of using picture books in high school classrooms: a study in two Canadian schools.”  
*Teachers and Teaching* 28(2): 149-163.

<Abstract>

## **A Study on Reading Picture Books for Labor Rights Education**

Rhee, Seo Young\*

As concerns in labor rights education increased, variou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produced teaching and learning guidance materials. Teaching and learning guidance materials were composed using various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nd materials. Among them, picture books, which account for a large proportion of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are highly accessible to learners regardless of age and can be sympathetic imagination, enabling sufficient cognitive and emotional understanding of things that have not been experienced. Accordingly, in this study, the criteria for selecting picture books and the reading process were developed as follows as a criterion for using picture books in labor rights education. The criteria for selecting picture books for labor rights education are set as labor rights knowledge, labor rights sensitivity, and labor rights practice possibility. The picture book reading process is set in the order of explaining, understanding, and applying. Finally, using the picture book “Maemi” as an example, a list of questions that can be generated in the process of reading is presented by applying the developed picture book selection criteria and three steps of reading picture books. Reading picture books in labor rights education makes students who do not know labor human rights interested in labor human rights and allow each student to know their labor rights

---

\* Center for Research & Developm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s

through imaginary variations and dialectical interpretations, protecting them selves' labor rights and respecting others' labor rights.

Keywords: labor rights education, picture book, selection criteria, reading process, self-understanding,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